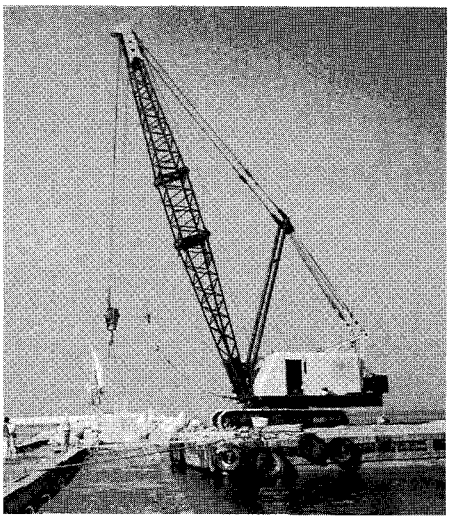
국내 최초 시공한 욕지항 유공구간

물양장·접안부두 확충 아쉬워

최 병 국
〈영생건설(주) 욕지항 현장소장〉



경남 통영군 욕지면 동항리에 위치한 본항은 남해의 수산 자원이 풍부한 해역으로 세력권내 어업의 근거지로서 평상시에는 지방어선 300여척과 황천시에는 외래어선 100여척이 대피하는 중요한 어항으로 남해 중부권 어장의 어업지원 기지로 정비되고 있다.

욕지도 인근은 해류·조류의 소통이 원활하고 수산물의 종류가 많으며 욕지도는 수역면적이 광활하고 깊은 수심과 조용한 수면등을 가지고 있는 천연의 양항으로 수산업이 발달된 지역이다. 특히 최근들어 여름철에는 수많은 낚시꾼과 관광객들로 북세통을 이루어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실정이다.

욕지항의 어항 시설을 위한 본격적인 개발은 수산청에서 88년 제2차 어항 시설정비 계획을 수립한 후 부터이며, 방파제 및 물양장 공사가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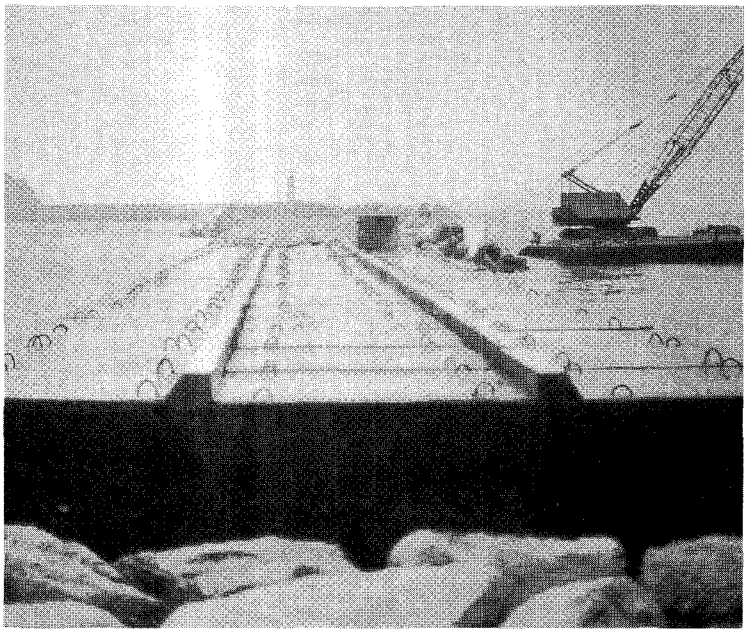
1994년 제11차 공사가 진행중이며 현재 욕지도는 690여 가구에 2,500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그다지 크지 않는 규모이지만 인접 충무항과의 교통이 편리하여 제반 생활환경이 상당히 발달된 섬으로 현재 섬 일주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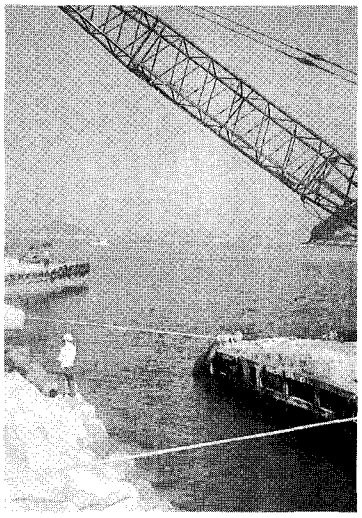
일주도로 완공 및 욕지항 개발이 완전히 끝나는 97년

경에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할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2,500여 주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멸치, 삼치, 방어, 볼락 등이 주 어종이며 최근에는 삼치가 많이 잡히고 있기도 하다.

육지항 공사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93년까지 서방파제 200m, 남방파제 하부 230m, 물양장 680m 동방파제 하부 77m를 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남방파제 상부 230m, 선양장 30m, 물양장 포장 230m, 동방파제 하부 91m를 시공하여 지금까지 전체 시설 개발율은 90%에 육박하고 있으며 올 공사의 공정도 8월말 현재 95%의 실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시공중 특이한 사례를 들자면 남방파제에 조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60m의 유공구간을 시설한 점이다.

이 시설은 전국 1·3종 어항을 통틀어 최초로 시공한 것으로 항내 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은 전국 어항에 확대 시설하여 어항 시설로 인한 환경 재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본다.

모든 어항공사가 그러하겠지만 육지항도 시공중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

첫째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최근 어촌 상주인구의 고령화 및 이어 현상으로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모든 기술자 및 기능공들을 육지에서 구해야 하고 확보된 인력마저도 육지와 다른 생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육지보다 월등이 높은 노임을 지불하고도 제대로 작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숙련된 기술자의 영입이 되지 않아 품질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다.

둘째로, 자재의 확보에 있다.

육지와는 달리 모든 자재를 해상으로 운반해야 하는 이유로 운반과정에서 자재의 파손도 문제이거니와 사소한 자재 하나라도 육지로 구하러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공사의 공정을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작년 시멘트 파동 때는 시멘트 확보의 어려움까지 겹쳐 몇 주일씩 작업 공백을 가져와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러한 것이 도서 벽지 공사의 품질확보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공기의 조정이다.

대체로 수산청 발주 어항공사가 3~4월경에 착공하여 7~8월 경이면 주요공정과 태풍기가 겹쳐 공사의 또다른 난제가 아닐 수 없다.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취약부분의 보강과 해체를 거듭하다보면 어느듯 한달이 지나가곤 하여 태풍기의 공사는 연속적인 긴장과 부담감으로 치러내고 있다.

최근 일고 있는 부실공사 추방 정책에 부응하고 합리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태풍기 이전에 준공함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발주 시기를 앞당겨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바램이다.

이 외에도 공사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타 현장에 비해 민원이 적고 주민의 협조가 잘되는 것이 우리에겐 그나마 힘이 되고 있다.

특히 92년 자부포 물양장 시공때는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돼지까지 잡아주며 격려해 주던 일은 정말이지 감격스런 일이었다.

이제 올해 공사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지금 유난히 더웠던 여름 초유의 더위와 싸우면서 땀흘려 일해준 현장 기술자들과 공사에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욕지항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물양장의 확충과 종합적인 어항 기능을 위한 여객선 및 화물선 접안부두 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망된다. 현재 욕지항의 물양장 시설 현황은 자부포, 동촌 마을에 집중되어 있고 입석 및 조선포 마을에는 돌제식 물양장 50m만 계획되어 있어 입석 조선포 주민들이 지역적 개발 불평 등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하루 300~400명이 이용하는 여객선 접안 시설은 간이 잔교 하나로 이용되고 있어 안전 및 이용도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적으로 정비된 어항, 관광어항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철저한 계획으로 어항 기능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수산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온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지금도 열악한 어항공사 현장에서 파도와 싸우면서 땀흘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있기를 기원한다.